

택함을 입은 자 (마태복음 22:1-14)

▶ 오늘 말씀은 택함을 입은 자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구원에 대한 원리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어 주셨다. 은혜 받기 바라고 중요한 답이 확실하게 나기를 바란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야! 여기서 우리의 모든 힘이 다 나온다.

▶ 오늘 마지막 절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많지 않다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였다. 사실 몇 일도 버티기 힘든 곳인데 40년을 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적이다. 우린 늘 듣는 말이라 예사로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라. 농사를 못 짓는데 무엇으로 먹을 것인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은 두 달 치정도 되는 거였다. 근데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온 것이다. 얼마나 놀랍나? 자고 일어나면 먹을 것이 내려와 있다? 정말 놀랍다. 매일 먹을 것이 반복적으로 내려왔다. 아주 뜨거운 지역 아닌가? 그렇다면 물이 많이 필요하다. 근데 40년 동안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없다. 사람들 뿐 아니라 짐승들도 물이 없어 죽은 적이 없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낮이 되면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이 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명이 넘었다고 예상하는데 그들을 덮을 만큼 구름기둥이 있던 것이다. 밤엔 추우니까 불기둥이 오고... 이것을 40년 동안 매일 지속, 반복하였다. 놀랍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 가데스바니아에 정탐꾼 사건이 있었다. 20세 이상 된 사람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다. 근데 그 중 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거나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없다. 너무 덥거나 추워서 죽은 사람도 없다. 전부 영적인 이유의 의하여 죽었다. 때로는 몇 천명 죽고 때로는 몇 만명이 우상숭배 하다가 죽었다. 음행을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죽은 것이지 육신적인 이유로 죽은 자는 없는 것이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성막이었다. 어려운 중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다. 출애굽 할 때 그날 저녁 발랐던 언약의 피를 거기서도 계속 고백하라고 했다. 성막을 만들어놓고 이게 언약이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것. 제사를 지내면서 너는 이것만 기억해라! 하는 것.

▶ 그 때 언약의 피 제사를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였다. 이걸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사실 광야에 적용하면 이스라엘이 할 일은 이것뿐이다. 먹을 것은 다 주는데 안 그런가? 아침에 일어나보면 땅에 먹을 것이 내려와 있었다. 지금은 그 방법으로는 아니지만 여전히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건 사실인 것이다. 그래서 너가 할 일은 성막이야. 이 언약 고백하고 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전하는 거야. 만일 여기에 올인 해 버린다면 네 인생에 내가 올인 하겠다!

▶ 이 어려운 삶 중에서도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설계를 다 하셨다. 모세에게 이야기 했다. 이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을 만든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 그 안에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만든 것. 이게 답이란 말이다.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언약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걸 행할 성막이 있어야 한다. 그 언약으로 예배드리고 누려야 한다. 광야에서도 지킨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릴 그렇게 지키는 것이다. 눈에 안 보이게 지킨다. 눈에 보이는 건 다들지 몰라도 원리는 안 바뀐다. 예화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구원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인생의 원리는 이래. 너는 지금도 광야에 있어. 근데 삶의 원리가 이거야 성막 예배, 기도, 누림, 전파!

▶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먹을 것을 내려주실 것이다. 전에는 눈에 보였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멋있게 공급해 주신다. 인생을 언약으로 통과해라!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 있어야 하고 언약 잡은 기도가 있어야 한다. 기도만 막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잡은 기도! 그것으로 인생을 통과해라!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다.

승리하고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가지고 증인되라. 이번 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1. 택함을 입은 자

▶ 오늘 이야기는 읽으신 대로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어 어떤 임금에 대한 이야기이다. 혼인 잔치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 하고 임금은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22:2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풀어 어떤 임금과 같으니

▶ 이렇게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청하였다. 근데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돌아가고 사업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 종들은 선지자나 전도자들을 말한다. 그러니 7절에 임금이 굉장히 노해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즉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니 바벨론을 보내어 쳐들어간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준비하셨는데 안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청한 자들은 합당치 아니하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마태복음 22:9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사람을 보고 만나는대로 오라고 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기회를 준 것이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었다. 그러니 임금이 그들을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했다. 이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말한다. 믿는자는 무조건 구원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4절이다.

마태복음 22:14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 청함을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 아니라는 것이다. 택함을 받아야 한다.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구원의 원리에 대해 예수님이 쉬우면서도 정확하게 주셨다.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였다.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믿음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자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없는 것.

엡 2:8~9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 내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닌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어서 내가 믿게 된 것.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믿을 수가 없다. 지식이 아무리 확실하고 깊어도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많이 알고 정확하다. 근데 믿음 없다? 구원 못 받는다. 시골에 할머니들 성경 잘 모른다. 그러나 믿음 있으면 구원 받는다.

▶ 사단은 그리스도에 대해 너무 잘 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따라 갈만한 인간은 없다. 근데 사단에게는 구원이 없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알기는 알지만 믿고 싶은 생각이 없다. 가인이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회개하고 싶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 대고 싶은 생각뿐! 그러니 구원이 없다. 그래서 지식보다 더 어려운 것이 믿음이다. 다 알아도 믿음은 자기 맘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다. 안 믿어져서 맘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 나도 그렇게 믿게 해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른 지식도 참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식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아주 좋은 선생님은 될 수 있다. 그러나 죽어도 증인은 안 된다. 자기가 증거가 없는 데? 증거는 믿는 자에게 주신다.

▶ 우리가 보통 알면 된다. 알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우리가 그냥 아는 게 아니다. 영적으로 진짜 아는 걸 말한다.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근데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힘이

없다. 그러나 영적인 역사와 함께 지식이 있으면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지식이 너무 중요하다. 즉 다음 단계로 지식이 중요하다. 먼저는 태함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고 그 다음이 많은 경험과 지식이다.

▶ 본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옥으로 던져졌기 때문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했다. 믿음이 없으므로 지옥 어둔 곳에 가고 슬피 우는 것이다. 상황이 너무 슬프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에게 태함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태함이 없으니 믿음이 없는 것이다. 슬피 울어도 회개 못한다. 너무나 억울한 일일 뿐이지 회개 할 마음은 안 생긴다. 은혜 없이는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늘 죄를 짓지 않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회개의 소리는 안 나온다. 오히려 이를 간다. 우리는 물론 이를 가는 사람은 없겠다. 기본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기본 은혜가 없던 것이다.

▶ 내가 믿기 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바란다. 이 모든 선택은 창세전에 끝났다. 우리가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결정 하셨다. 이게 천국의 원리 중에 하나이다.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다. 예수님은 구원의 원리에 대해 확실한 선을 딱 그었다. 그렇다면 이대로 믿어야 한다. 로마서엔 이런 부분을 더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2. 하나님의 절대 주권

▶ 태함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선택을 하는 사람을 선택권자라고 한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 선택권이 없다. 길을 가다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도 우리에게 와 있는 은혜로 하는 것이지 순전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란 것이 있다. 그것 때문에 동물도 뛰어다닐 수 있는 것이다. 다람쥐 호랑이 다 자기 방식대로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갈까는 내가 정한 거라고 말한다면 그건 인간이 잘 몰라서 그렇다.

▶ 선택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 구원은 사실상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정말로 이유 없이 결정을 한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느 날 모습을 나타내어 오게 된 것이다. 이것을 위해 내가 한 일은 한 개도 없다.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라. 있는가? 하나도 없다.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무슨 능력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믿었나? 믿음 없이는 안 된다.

▶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야곱과 에서는 태중에서 정해졌다. 에서는 무엇을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없었다. 그래서 구원에서 제외 되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절대주권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 믿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은 억지로 엮었지만 믿게 된 것이다. 그 때부터 구원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결정되었다.

▶ 이 절대적 선택을 받은 자를 찾는 것이 전도이다. 그래서 전도도 절대 조건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우리가 누구를 설득하여 믿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준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받는 것이다. 이 부분이 잘 안 믿어질 수도 있겠다. 믿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도를 죽여라 해보면 안다. 복음 알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접한다. 그러나 복음 없는 상태에서 전도하려고 죽음을 다 하면 길게 가야 5년? 지속 안 된다.

▶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를 찾는 것이 증거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인도 받아라. 제 7차 자체 캠프를 한다. 전도는 성령 인도고 절대 주권이

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고 이 전도를 두고 기도하라. 팀장들은 특별히 명심하라. 그래서 이렇게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약간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한다. 그러면 이 선택 받은 자를 어떻게 찾는가? 누가 누구인지 어떻게 아나? 복음을 전해보면 안다. 당장 표시가 난다. 복음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만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니 싸움이 난다. 그런 말 필요 없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버리면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판결이 난다. 그래서 복음이 기준인데 복음이 답인 것이다.

▶ 예비 된 자는 복음에 반응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발, 자기 사업 처로 가는 것이다. 구원을 위한 선택이 없거나 아직 시간표 안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도자를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또한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전쟁 일어난다. 우리 가만히 있는데 자꾸만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단은 계속 전쟁 걸어온다. 성경도 그렇다. 조용히 복음 묵상하고 전하면 되는데 자꾸만 내용 가지고 싸움을 건다. 악한 짓을 하는 것. 우리는 이 전쟁을 위해 힘이 필요하다.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 영적 힘이 필요한데 이게 복음 안에 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적 힘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위해 그리스도를 누려야겠다. 언약으로 딱 잡아야 한다.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 이 일을 방해하는 사단을 향하여 다시 한 번 선포 해야 한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자를 찾고 훈련해서 조직을 만들고! 대를 이어서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램턴트 제자를 계속 세우는 것이다. 237 해야 하니까 다민족 제자 계속 일어나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 236 치유 서밋! 이걸 위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언약 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안으로 들어가는 것. 세계 복음화 237안으로!

▶ 리가 절대 계획안에 있다면 개인에게 절대 언약을 주실 것이다. 말씀 딱 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해야 할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이끌어 신다. 꼼짝 없이 그리로 가게 되어있는데 이게 절대 예정이다.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다. 때론 큰 응답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론 큰 고난이 오기도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신다. 모든 고난은 발판이다. 다음 단계에 더 큰 것을 위한 준비다. 그릇 준비!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언약을 잡아야 한다. 그리스도가 진짜 이 모든 문제의 답인가? 정말로 그리스도는 뺨의 머리를 박살 낼 수 있는가? 내가 이 언약을 잡고 누리고 기도하면 정말 이 영적문제를 박살 낼 것인가? 그래서 더 크게 열리고 더 깊이 열리는 곳으로 데리고 가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계속 얻고 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참고로 예를 들어주시는 게 성경이다.

▶ 리는 언약을 바로 잡아야한다. 평생의 언약도 있다. 그리고 순간 순간 올하는 이렇고 이번 달은 이렇고 하는 언약도 있다. 그것과 함께 절대 언약이 있다! 죽어도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이다! 이게 언약으로 들어온 사람의 기도는 무조건 응답 하신다. 이게 우리가 갈 영적 상태이다. 이렇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세계나 서밋 타임 등등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절대 언약을 잡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 하실 것이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 된다. 하나님이 왠지 이유 없이 우릴 선택하고 구원하셨다. 참 놀라운 일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라. 도 대체 어찌 된 일인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부족한 분들 에는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생각할 수 있으니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라. 왜 지옥이 안 믿어지는지? 천국은 그저 말에 불과한가? 근본이 흔들리는 것이다. 안되었으면 유튜브라도 들어가서 참고로 들어봐도 좋겠다.

▶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100배로 받을 것이다. 영원히 저주 받아 지옥 갈 인간들 아니었나 우리가? 근데 거기 안가고 영생으로 가니 참 놀랄 뿐이다. 우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많은 제자를 세우는 헌신적 인생이 되기 바란다. 위하여 오늘도 다시 한 번 언약을 잡기 바란다.